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오기웅입니다.

제38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개최된 「제2회 중소기업 정보보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관계기관 관계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해 주신 김진수 정보보호산업협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조강연을 맡아 주신 중앙대학교 윤오준 교수님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낙준 국장님, 그리고 에브리존 김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강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디지털전환위원회 위원님들과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보화는 기업 경영 전반과 거의 모든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랜섬웨어, 개인정보 유출, 공급망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협 또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AI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실제 보안사고를 겪고도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복구 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보안사고는 단순한 IT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수익 감소는 물론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문제와 기업 신뢰도 하락까지 초래하며, 나아가 기업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랜섬웨어 피해 신고의 89.4%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업종별 피해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정보서비스업(15.8%)과 금융업(10.5%)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곧 중소 제조업 분야가 현재 가장 취약한 보안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부터 보안 솔루션 지원, 사고 대응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마련된 오늘 세미나는, 첫째, 사전 예방 관점에서의 정보보안 실행 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보안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스스로 정보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랜섬웨어와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과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고민해보시고, 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보안사고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역시 더욱 폭넓게 공감되고 논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세미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중소기업 정보보안 현안을 함께 논의  
하고 경험과 해법을 공유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